

우루과이 대통령 페페 무히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이정은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일, 무히카 대통령이 허름한 자가 용을 몰고 투표장에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 부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히카 부부는 오랜 동거생활 끝에 2005년에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무히카 대통령은 내년 2015년 2월 28일부로 임기를 다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우루과이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무히카 대통령,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 무히카는 물론 인간 무히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히카 대통령 부부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위치한 대통령 궁을 마다하고 시 외곽의 부인 사택에서 취임 전처럼 살고 있다. 그의 일상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한 이후 안전과 경호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 다른 우루과이 국민들과 함께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직접 자가용과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등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통령의 일상을 보고 있다면, 무히카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 1987년 출시된 폭스바겐 비틀이라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다.

우루과이 국민들로부터 페페(Pepe)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무히카 대통령은 1935년 몬테비데오의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자전거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국민당 지지자이던 외숙부 안헬 코르다노의 영향으로 정치에 눈을 뜬다. 당시 쿠바혁명 등 라틴아메리카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나타난 무히카 대통령
출처 : <http://www.infobae.com/2014/10/26/1604337-mujica-llego-votar-su-fusca>

전 대륙에 게릴라전이 유행처럼 번지던 60년대 독재정부에 대항한 게릴라 단체 투파마로스(Tupamaros)에 가담했으며, 여기서 현재 부인이 된 루시아 토폴란스키를 만났다. 무장 게릴라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1971년 11월 현역 경찰인 호세 레오나르도 비알바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인상의 무히카 대통령은 사실 감옥 복역기간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복역 도중 두 차례나 탈옥을 감행하였다가 다시 붙잡혔다. 우루과이 민주화 이후 제정된 정치범 사면법에 의거하여 1985년 13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 후에는 민중참여운동(MPP: Movimiento de Participación Popular)에 참여하였다. 1994년에는 하원의원이 되었고, 1999년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계열 정당의 연합체인 확대전선(FA: Frente Amplio)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대선에 승리하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부의 농목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2009년 확대전선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급진 좌파, 게릴라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실리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2009년 10월 2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얻어 게릴라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감방에서 73명이 땅굴 파, 어제 수감자 106명 탈출”

당시 그가 복역하던 푼타카레타 감옥은 현재 몬테비데오의 시내 중심가의 쇼핑몰로 탈바꿈하였다. <http://elmuertoquehabla.blogspot.com.ar/2011/09/40-anos-del-abuso.html>

한편, 전 대통령 바스케스가 지지했던 다니엘 아스토리는 확대전선 후보 경선에서 무히카에게 패배하지만 무히카는 집권 이후 아스토리를 부통령으로 지명한다. 실질적으로 무히카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은 경제학자 출신인 아스토리의 지휘 아래 추진되었다. 무역, 에너지, 철도 분야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려고 애쓰는 한편,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도모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디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화력발전소 건설 등 외국 투자자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2012년 현대건설의 우루과이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것도 그 예 중 하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 즉 2차산업이 전무하고 1차, 3차산업에 의존하는 우루과이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법 제정 및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항구로서 상품생산지와 물류 기지의 연계 시스템 강화하여, 국제적인 항구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과 최근 인접국인 브라질과는 자체화폐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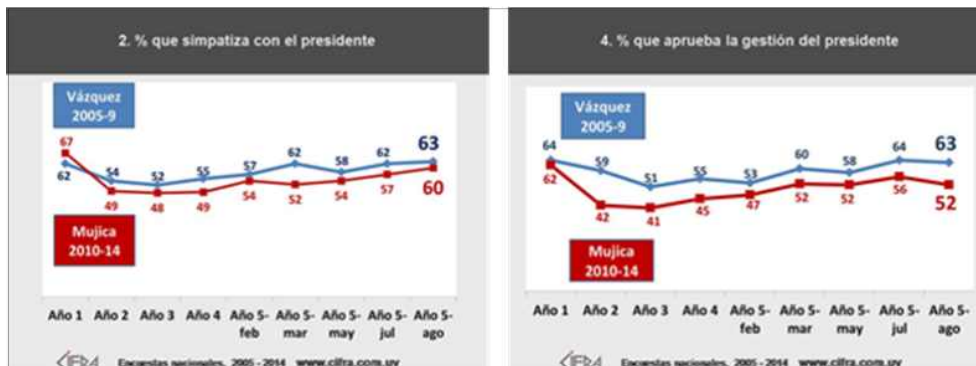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사랑 받는 대통령?

칠레 사회당의 최고대표위원 오스발도 안드라데는 “무히카는 라틴아메리카의 만델라다”라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국제 언론 BBC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란 기사로 국제적 주목을 받은 이후, 그의 ‘간소한 생활방식’과 ‘반소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와 ‘동성애결혼 허용’ 등 인권문제 대한 진보적 정책 추진으로 국제적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얻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의 NGO, 브레멘 대학교의 105명의 대학교수 등의 추천으로 한때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페페 무히카 대통령, 과연 우루과이 국내에서 그의 인기는 어떨까?

2005년 바스케스가 속한 확대전선이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우루과이는 독립 이후 180년간 양당 구도가 지속되었다. 1985년 민정 이양 이후 이렇다 할 경제발전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2000년 초반에 닥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경제위기로 우루과이 경제는 도미노식 위기를 맞는다. 2005년 대선에서 확대전선이 승리를 거둔 것은, 경제, 사회, 정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치적 사건이었다. 확대전선은 전 정권의 실용주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경기 위기상황에서 벌어진 사회격차와 등한시되었던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2009년 대선에서 무히카가 승리하면서 정치사회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단합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보완, 치안, 교육, 인프라, 주택 문제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을 추구했다.



프랑스 잡지에 표지로 등장한 무히카 ‘우루과이, 진짜 보통 대통령’
출처 : <http://www.taringa.net/>



2014년 8월 실시된 CIFRA의 여론조사 결과

출처: <http://www.cifra.com.uy/novedades.php?idNoticia=240>

하지만 집권 이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기에 제시한 각종 공약 실현의 정체, 가시적 성과 부족 등으로 무히카 정권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고조되고 정권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여당 내부의 갈등, 야당의 반발 등에 부딪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면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대부분의 국민은 무히카의 연설과 한 인간으로서의 ‘페페’에 대해서는 애정을 표시하면서도 ‘대통령 무히카’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가는 동안, 그가 언급했던 정치적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반대 여론이 더 많아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도 1년 만에 상원을 통과하였고,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타나모 수감자 4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가난한 대통령, 진보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팔고 있다’며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그가 집권한 이후 매년 범죄율 증가하고, 교원 부족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이수율이 줄어드는 등 집권 초기에 약속한 교육, 보건, 치안문제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문제를 등한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비판은 지지도에서 즉시 반영되었다. 2009년 5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2010년 집권 첫해 62%로 시작했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42%까지 떨어졌다. 2014년 8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52%로 약간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일

대통령 바스케스의 말기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우루과이의 정치학자 다니엘 차스케티는 그의 인기에 관련해 “위기에 서 사람들은 나와 처지가 같은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발휘하는 법”이라며 “2002년 우루과이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무히카의 서민적이고 검소한 생활과 태도에 대해 주목하고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당시의 “국가적 위기가 결과적으로 무히카에게 새로운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늘의 안정된 우루과이 경제는 어쩌면 무히카의 인기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며 “물론 현재 시점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객관적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우루과이 대선은 흔히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10월 26일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¹⁾, 11월 30일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투표에서 우세를 보인 확대전선의 타바레 바스케스 후보가 유효표 기준으로 56.5%의 득표율을 얻어 무난히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우루과이의 확대전이 다시 승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리더십은 칠레, 브라질에 이은 ‘좌파’, ‘중도좌파’ 성향이 공고해졌다.

인간 페페 무히카의 간소함의 철학과 반소비주의

무히카는 정치인으로서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로를 밟아왔지만, 그야말로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수리남 이후로 2번째로 작은 영토를 가진 우루과이는 인구 34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간소하고(austero) 교양있는(culto) 국민으로 명성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우루과이의 문맹률은 현재까지도 라틴아메리카의 최하위권에 머물 뿐만

1) 우루과이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따라서 무히카는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고, 전임 대통령 타바레 바스케스가 후보로 나섰다. 2014년 10월 2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광역전선(좌파)의 타바레 바스케스 후보가 47.8%, 국민당의 루이스 라카예 후보가 30.8%를 득표했다.

아니라, 이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 모두 국민들의 친절함과 교양, 겸손함과 검소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호세 무히카는 그런 우루과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이다. 특히나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함, 편리함을 뒤로하고 시골집에 머물기를 고집한 페페 대통령.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수감 생활 때문일까?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걸치레를 싫어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다. 뇌물, 비리에 무관한 대통령이 바로 여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의 인생철학은 2012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정상회담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부유한 서양 사회의 낭비적 소비 행태를 70~80억에 달하는 세계인구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만한 자원이 지구에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명은 시장경제와 경쟁을 낳았고 폭발적인 물질적 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시장사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경제는 우리에게 세계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계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요? 이와 같은 소비사회는 오늘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입니다. 이 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입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왔습시다. 인생은 짧고, 금세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재물도 삶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으며, 인생은 그만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가 사회의 동력인 사회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비를 위해 일하고, 일하다 삶을 허비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멈추고, 그 경제가 멈추면 '침체'라는 환영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작 대량소비야말로 지구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상품의 수명을 단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을 사용하는 전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1000시간만 쓸 수 있는 전구만을 파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구는 금방 쓰고 버리는 '일회용 사회'에서는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회용 사회'를 지속해야 하는 악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제 동지들인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시다. 지금은 하루 6시간 노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일도 부업으로 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구매에 들어간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다 갚고 나면 아마도 저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노인이 되어 있고,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일까요?

개발이 행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행복에 기여하고, 지구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 아이를 돌보고, 친구를 만드는 등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행복입니다. 환경을 위해 싸울 때는 환경의 첫 번째 요소인 인간의 행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2012년 8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정상회담 연설문 일부)

아마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가 페페 무히카 대한 관심과 존경을 보인 이유는 물질적으로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씻겨 내준 유일무이한 대통령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리우 연설에서 드러난 무히카의 인생철학에서 우리는 그가 어째서 대통령궁을 마다하고 작고 소박한 시골집으로 갔는지, 럭셔리한 차를 마다하고 오래된 자가용을 고집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무히카는 우리에게 소비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소비주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신념과 의식에 대해 믿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무히카의 철학은 분명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깊은 성찰 없이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중요한 가치와 질문을 제기하고,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세계의 담론으로 확장한다.

이정은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석사 과정